



결국 해변공연장 철거 담아 탑동 혁신지구 응모

도, 지난 14일 국토부 제출
마감 이틀 앞뒤 공청회 개최
철거 재고 등 주민 이전에도
용역 계획안 중심 공모 신청

결국 형식적인 절차였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마감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지난 12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공청회. 용역진 책임기술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후 발언에 나선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계획안 재고 요청 등 의견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변공연장을 허물고 지상 15층 건축물 등을 세워 제주시 원도심과 신항을 잇는 제주혁신플랫폼을 조성하는 안은 바뀌지 않았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청회 계획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국토부 공모를 신청했다. 계획안은 현재



지난 11일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관악제.

한라일보 DB

해변공연장과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제주시 삼도2동 1262번지 일원(대지 면적 1만3578㎡)을 복합 개발해 제주 청년·로컬 기업·기관 업무 시설, K-컬처 중심 복합 문화 공간, 실내외 공연장 등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 2514억원(국비 최대 250억)을 제시한 이번 계획안의 논란거리 중 하나는 해변공연장 철거

다. 용역진은 지난 공청회에서 러시아의 여름 원형 극장 사례를 들며 “해변공연장을 재구성해 공연 환경과 도시 공간의 질적 제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주국제관악제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 잡은 멸종한 해변공연장을 부순 뒤 근처에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두고 공연계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막을 내린 관악제에서

만난 WFIMC(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의 김진영 매니저는 “30년을 쌓아온 유산”으로서 해변공연장의 가치를 언급하며 철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매니저는 “해변공연장은 관악제만이 아니라 여러 행사들이 열리면서 음악가는 물론 도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이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제주에서도 바다 옆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확정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공모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공청회 일정이 촉박했다”며 “공모 선정 시 계획상 착공 목표 연도는 2028년이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착공 전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의기암호판> <513>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오달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엔 혼 디서 ‘각시’에 대신 시 이악을 햏여보겨.”

각시

각신 지레 죽안

나신디 돌아질 땐 발치기를 들주마는에

오일장 인파 소품이서는

봐짐 직 맘 직 햏주마는에

뜬다앗는 자리가 어떻게 닐른지

모양새가 알매나 동찬지

집안 구석구석

아이덜 가심 빈 트명마다

나가 밤새냥 짓는 햏뽁햏 질마다

략략 참주마썸

츨말,

초햏를 햏속 햏나 ㄱ득 키왕

은 시상에 뿌리는 보름돌 햏오고양

설한풍에도 구썸 피어냥

햏기 나곡 청초햏 수선햏 햏아마썸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지레 죽안: 키가 작아
*발치기를: 발꿈치를
*봐짐 직 맘 직: 보일 듯 말 듯
*뜬다앗는 자리가: 들끓는 자리가
*햏뽁햏 질마다: 날밤질 방황길마다
*참주마썸: 참지오
*구썸 피어냥: 꽃꽂이 피어나

*돌아질 땐: 매달릴 땐
*들주마는에: 들지만요

*가득 키왕: 가득 키워

문화가 쏘지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유한회사 켈파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버스를 타고 전문가 안내를 받으며 제5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한다. 날짜는 9월 5일과 6일, 9월 12일과 13일. 이달 19일부터 선착순 접수. 1인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 참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월별 세시풍속 체험=8월 주제는 마불림제. 장마가 끝난 뒤 녹녹해진 신당과 기물을 정비하던 제주의 옛 의례를 습기 제거제 만들기로 되살렸다. 이달 2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광장.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미디어아트 ‘바람이 만든 제주’=미술관 소장품으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신화월드 신화테라스 대형 스크린에서 오는 10월 18일까지 상영한다.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매시 정각에 볼 수 있다.

레보아 앙상블 정기 공연 비올리스트 김보연 협연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주자와 작곡가들로 구성된 전문 음악 단체 ‘레보아 앙상블’. 이들이 이달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무스홀에서 네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

넷의 화려한 기교와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생상스의 ‘타란텔라’를 시작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홀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협연 김보연), 그리그의 ‘페르 귄트 모음곡 제1번’을 차례로 들려줄 예정이다. 김진홍의 지휘로 레보아 앙상블과 협연하는 비올리스트 김보연은 제주대와 소피아 국립음악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부수석을 지냈다.

레보아 앙상블 측은 “작품의 예술성과 함께 청중이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레퍼토리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며 “연주자 중심의 무대를 넘어 관객이 음악의 이야기와 정서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제주4·3 담은 창작 판소리 제주 소리꾼들 조천읍 공연

제주4·3의 이야기를 품은 창작 판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사)한국 판소리보존회 제주지회가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6년 ‘담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으로 선보이는 ‘기억의 소리 제주4·3’이다. 오는 26일 오후 4시 제주시 조천읍 조천주민교류센터.

이번 공연은 창작 판소리 ‘제주 4·3가’ 시창을 중심으로 했다. ‘제

주4·3가’는 권미숙 판소리보존회 제주지회장이 지난해 7월 4·3행방 불명희생자 진혼제 초청 공연을 계기로 제주4·3연구소에서 펴낸 구술집에 기반해 직접 극본과 작창에 나선 작품이다.

이날 무대는 평화로운 제주 풍광을 노래한 제주 창민요 ‘영주십경’으로 시작한다. 뒤이어 권미숙 회장의 ‘제주4·3가’로 제주가 겪은 슬픔을 나눈다. 이 작품의 중모리와 진양조에서는 살풀이춤을 더해 영령들을 위로한다. ‘제주4·3가’가 끝난 후엔 권 회장이 4·3을 소재로 만든 단가 ‘제주 4·3행방

인곡’을 제주지회 회원들의 폐창으로 전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화북·신촌·조천에서 행해졌던 당건 제작 등의 전통을 되살린 노동요 ‘당건 만드는 노래’ 등을 준비했다. 마지막엔 조천읍 마을의 위상을 담아 노랫말을 바꾼 ‘진도아리랑’과 ‘제주도 타령’을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부른다. 2부 공연에 앞서 제주4·3과 조천읍 마을에 대한 윤봉택의 향토사 강연도 있다.

고수 이상명, 해금 김민정, 대금 김동근, 살풀이 양정인, 진행은 강봉수 제주대 교수가 맡는다. 진선희기자

수축상 농협 창립 65주년 기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강성방
(대정농협협동조합장)

농협 창립 65주년 기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농협 농촌사랑 자원봉사단

수축상 농협 창립 65주년 기념 총화상



대정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강성방)

농협 창립 65주년 기념
총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농협 농촌사랑 자원봉사단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